

지철 스님의 **도상**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청학 비상서 찾은 관음보살 의미

명성황후의 심장생 병풍

대승불교에서 가장 사랑받는 존재는 누구일까? 그분은 관세음보살님이라는 데 이의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동양삼국인 한중일을 비롯해서 삼좌부 불교까지 관세음보살은 그 존재와 지위를 명확히 하고 있다.

티베트불교에서 관세음보살님이 흘린 눈물서 태어난 백색과 녹색의 다라관음(多羅觀音)들조차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다. 녹색 타라는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백색 타라는 자비로 중생을 돌보고, 장수와 치유, 평정함을 얻게 해 준다.

그리고 한국 일본 중국 중 가장 먼저 관세음보살을 모시는 사찰을 지은 곳이 바로 낙산사다. 낙산사의 대승불교 속에서 위상은 중국의 관음성지인 절강성 영파 보제사(普濟寺)의 방장스님도 동아시아 최초 관음성지로 인정하는 말씀을 직접 들었다.

관음본연경(觀音本緣經)에 의하면, 옛날 남인도의 장나 장자와 마나사라 부인교에 태어난 두 형제인 조이와 동

다섯 청학 날아 오른 전설은

5천만 우리 민족 상징해 '홍미'

생 속이의 설화가 있다. 일곱 살에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가 후처를 얻었는데, 아버지가 이웃나라로 무역을 간 사이 계모가 두 아이를 무인고도(無人孤島)에 버린다.

동생 속이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죽어가자 형인 조이는 고통을 겪으며 사는 모든 중생들을 구하는 보살이 되고자 하는 서원을 남기고 죽는다. 이렇게 조이는 다시 태어나 관세음보살이 된다. 그 조이와 속이가 죽은 섬의 이름이 보타락가산으로 백화산(白華山)과 일광산(日光山) 두 개의 산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양양 낙산사에는 매우 특별한 관음성전이 있다. 바로 보타전(寶陀殿)이다. 세계에서 한 곳의 성전에 가장 많은 관세음보살상을 모셔놓은 곳이 어디일까? 바로 이 보타전이다. 전각에 모셔진 모든 관음상을 다 세어 보면 전부 1539분의 관세음보살님이 모셔져 있다.

밀교(密敎)의 영향을 받은 보살상들이긴 하지만, 7관음상(천수관음, 성관음, 십일면관음, 여의륜관음, 마두관음, 준제관음, 불공견색관음), 32관음 응신상, 그리고 1500분의 좌불형의 소경 관세음보



명성황후가 순종의 무병장수를 기원하여 제작한 심장생 병풍 중 '청학비상'

살상이 묘사져 있다.

재미있는 것은 32관음을 천수관음으로 치고, 1500관음상과 곱하면, 우리 민족의 숫자와 비슷한 4800만이라는 숫자가 나온다. 이 보타전은 마근스님과 지홍스님의 원력으로 91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93년에 완공한 건물이다.

7관음이 모두 묘사된 한국최초의 관음전각이기도 하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7관음이 봉안되는 날 밤에 하늘에서 풍악소리가 울리고, 다섯 마리 청학이 하늘을 날고, 때를 맞추어 동해바다는 울음(아마 파도소리가 아닐까?)을 그치고, 무지개빛 서기(瑞氣)와 광명이 세상에 가득 찼다고 한다.

백학이 천년을 살면 청학이 된다고 한다. 홍미롭게도 다섯 마리의 청학은 5000이라는 숫자를 이루어 오천만 민족의 숫자와 일치한다. 진리를 숫자로 표현하는 법수(法數)의 관례가 있는 불교의 습속에서 보면 이런 일치는 어떤 상징을 이룬다.

여기 이 사진은 사실 명성황후 민씨가 처음 낳은 두 아들이 요절하여 죽고, 세 번째 얻은 순종황제의 무병장수를 빌기 위해 제작한 심장생 병풍의 한 부분이다. 구름위 태양 가까이 날고 있는 청학은 아름답고 청초하기까지 하다.

미국의 오레곤대학에 소장돼 있지만 우리 정부에서 비용을 전액 부담해 용인에 있는 고창문화재연구소에서 수리를 끝내고 이제 미국으로 돌려줄 예정이다. 필자는 운 좋게 보타전 7관음 봉안 때 비상했던 청학의 아름다운 모습을 실컷 보았다.



동화사 성보박물관장

일러스트 속에 담겨진 붓다의 세계

김용덕의 '도일, 붓다를 즐기다' 展

불화는 대표적 불교예술 중 하나다. 많은 사찰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불화는 교화를 목적으로 다양한 불교내용을 함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화에 담긴 진정한 내용을 알려고 하기 보다, 무서운 표정을 짓고 있는 사천왕이나 화려한 색채에 거부감을 드러낸다.

"일반인들은 불화를 무속화처럼 인식하는 반면 불자들은 불화를 지나치게 신성시한다"고 말하는 일러스트레이터 김용덕(58) 씨는 붓다의 존재를 많은 사람들이 편안히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싶었다고 한다. 9월 12~18일까지 서울 종로 불일미술관에 전시되는 '도일, 붓다를 즐기다'는 불교일러스트 작품 40여 점을 통해 불교문화를 알리고자 했다.

"불화는 오랜 세월 우리 일상 속에서 히로에락을 함께 해온 예술이자 문화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단순히 전통문화의 하나로만 대접받거나 무속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루벤스나 미켈란젤로 그림들은 종교적 내용을 담고 있어도 예술성이 높은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는 반면, 고려불화 등은 박물관이나 교과서에 박제된 채로 남은 사실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계명대 미술대 시각디자인과를 졸업한 김용덕은 홍익대 대학원서 산업디자인을 전공한 후 상업대, 계명대, 장안대, 경원대 등에서 겸임교수를 역임했다. 또 2000년 격월 인형전문잡지 'edolls'를 발행해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했으며, 현재 불교일러스트연구소를 운영 중에 있다.

그는 "대학에서 겸임교수를 역임하던



부처님의 열반을 그린 '적멸'

쉽고 편하게 불교 느끼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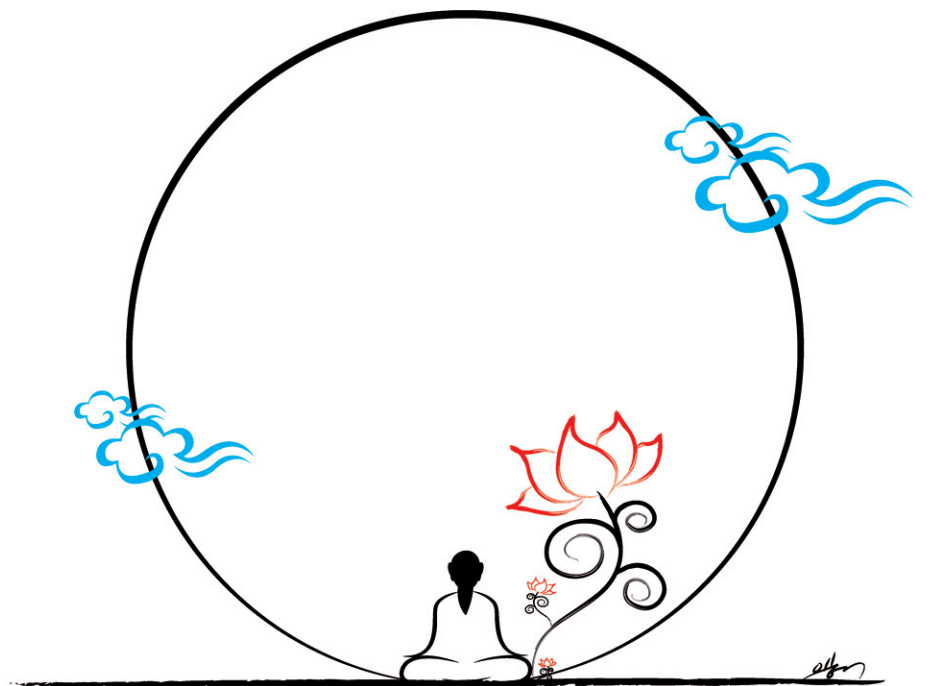
일러스트 40여 작품에 표현

그림으로 불법 공포에 힘쓸 터

시절, 학생들과 함께 수업의 일환으로 사찰 참배에 나서면 학생들의 사천왕상이 무섭다고 호소해 안타까웠다. 어떻게 하면 부처님을 좀 더 친근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 한 끝에 대학시절 공부한 시각디자인을 통해 일러스트 작업에 몰두하게 됐다"며 "그래서 이번 전시의 주제도 대중들이 불교를 친근하게 대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도일, 붓다를 즐기다'라고 정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그동안 동산불교대 법인스님에게 불화를 배우고, 능인선원 불교대학을 다니며 불교를 공부했다.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불법 공포의 서원을 담아 작품에 임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그가 지난 3년 동안 집



김용덕의 '도일, 붓다를 즐기다' 전이 9월 12~18일까지 서울 불일미술관에서 열린다. 작품은 김용덕의 '이뤄꼬'

중적으로 준비한 작품만 전시된다. 작품은 모두 디지털프린트로 작업했으며 단순해 보이면서도 화려한 색감이 더해져서 특

징이다. 특히 "구경열반(究竟涅槃) 2'은 삼매에 든 남자 뒤로 부처님 얼굴이 등장한다. 고민을 하고 있는 듯 한쪽으로 까우똥하게 치우친 부처님의 얼굴을 바로 세우려는 수행자의 정진이 돋보인다.

그는 "사람'의 받침 'ㅁ'이 둥글어지면 '사람'이 되는 것처럼, 부처님이 꼭 정적인 자세로 굳어있어서 안된다고 생각했

다"고 말했다. 또 '이 뿔꼬 2'는 좌선을 하고 있는 승려의 머리 위로 빨간색 연꽃이 크게 핀 모습이 형상화돼 있다. 환희심을 얻은 승려의 마음을 단순명료하게 표현했다.

김 씨는 "불교와 불교문화는 무속적인 것이 아닌 높은 정신세계에 기반을 둔 가치 있는 것이다.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작품을 통해 널리 전하고 싶다. 또한 전시를 마친 뒤 작품을 디자인제품으로 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2)733-5322 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마음공부서 찾은 여유의 미학

이윤진 작가 '쉬어가기' 展

종이에 검은 먹을 찍어 형태를 만들어가는 작업은 감정들이 덩어리처럼 뭉쳐 하나의 존재가 되고 또다른 경계를 만든다. 점을 찍는 행위 그대로 작가가 스스로 인식하는 존재감이며 그 인식들은 다시 '감정 덩어리'가 되었다.

동양화가 이윤진의 '쉬어가기' 展이 9월 16일까지 스페이스신+에서 열린다. 작가는 마음 들여다보기를 통해 인간을 탐구하고 더 나아가 자연과 조화로운 삶의 열망을 작품으로 보여준다. 주제로 선택한 '감정덩어리' '섬' '나라' 시리즈는 자신이 보았다고 생각이 드는 것과 보고 싶은 것과 볼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 모아 작업으로 표출했다. 그리고 이것은 '쉬어가기'라는 역설적 제목으로 쉬어 지지 않는 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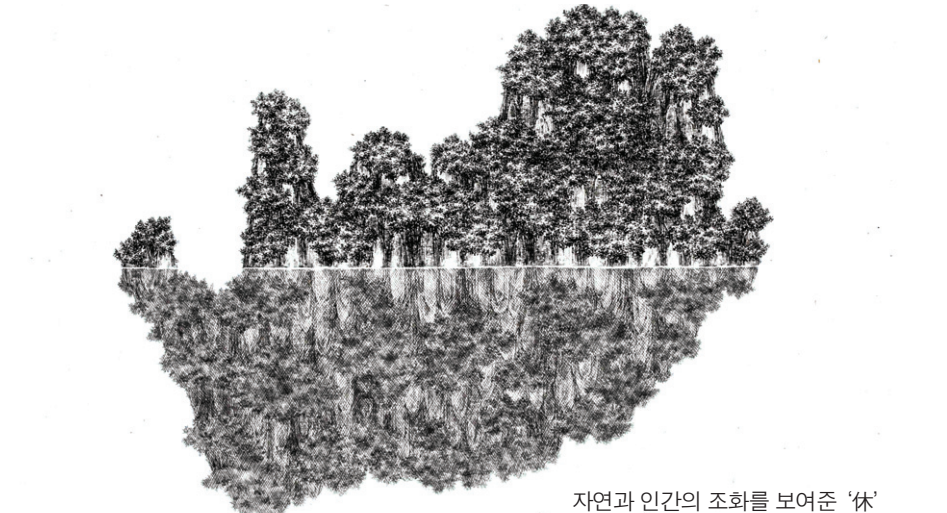
의 움직임을 오히려 묘사하고 있다. '감정덩어리' 시리즈에서는 점과 선이 하나의 덩어리가 되고, 그 덩어리들이 모여 또 다른 존재를 만든다. 이는 특정한 감정을 전달하고자 강요하는 것이 아닌 보는

감정덩어리·섬·나라 등 소재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삶 추구

이의 감정에 충실할 수 있는 요소들만 전달하고자 했다.

'섬' 시리즈는 객체가 스스로를 인식하는 방법을 찾는 과정이다. 실재와 허구, 현실과 비현실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출발한 이 작업들은 감정 덩어리의 형상을 가지고 상반된 혹은 같은 공간의 개념을 표현하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보여준 '섬'

하기 위한 노력들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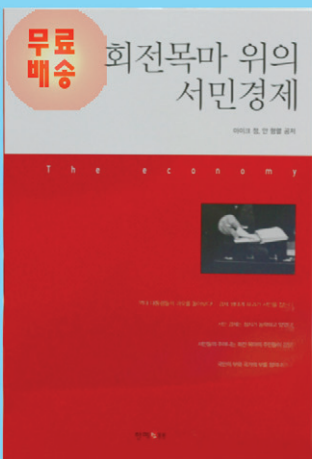
또 산업화와 물질주의로 얼룩진 현대인들은 일상생활에서 한걸음 물러나, 자연과 유기적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임을 깨닫고 쉬어가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02)732-0732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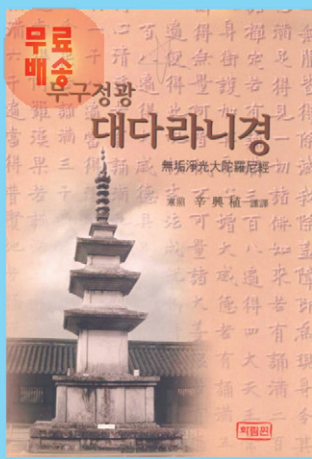
무료 배송
풍수총론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비결

현, 불교TV에서 풍수학 강의 중 동방대학교 대학원 석좌교수
저자 : 耳山張泰相
정가 : 40,000원



무료 배송
회전목마 위의 서민경제

저자 : 아이크 정 안형렬 공저
정가 : 15,000원



무료 배송
대다라니경

無垢淨光大陀羅尼經
寒照辛興植 謹譯
정가 : 10,000원

30년 전통의 제조명가에서 제조하는 수공예 불교 은제품 건강과 믿음을 위한 어려분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



도서 및 주얼리 은제품 구매문의 : (주)한메소프트 02)879-2007
입금계좌 : 신한(100-023-357023) 농협(1281-17-003433)
예금주 : (주)한메소프트
인터넷 상품구매 : 칠성상회 http://shop.7-star.net 에서 해당 상품 검색 후 구매 가능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투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이 오 칼 라 지 붓 공 사 (구. 현대칼라지붕공사)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